

현장 출동요원의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이 강 린 _ 에스원 SE서비스지원그룹 /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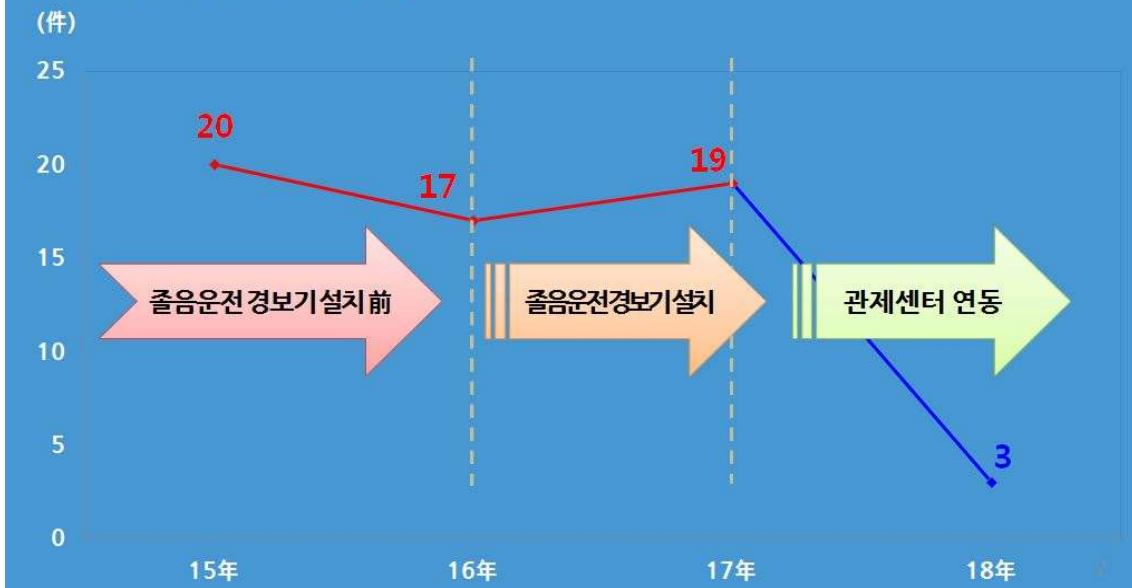
1. 추진 배경

에스원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담당하는 출동사원은 고객의 안전과 안심을 제공하는 주체로서 담당지역을 단독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차량을 이용하여 24시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항상 각종 차량사고와 졸음운전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대형 차량 사고 발생시 본인의 신변안전은 물론 담당지역 내 고객서비스가 중단되고, 경비공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어 다방면으로 차량사고 예방활동을 하던 중 치명적인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 7월 "졸음운전 경보기"를 차량 내 설치하여 운영 하였다.

2. 추진 현황

2016년 7월 "졸음운전 경보기"를 차량 내 설치하여 운영 하였으나 설치 전후를 비교해 보면 개선의 효과 없을 뿐만 아니라, 2016/2017년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몇건의 사고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 졸음운전 사고 현황



[그림 1] 졸음운전 사고 현황

졸음운전의 특성상 "졸음운전 경보기"의 자체 경보만으로는 운전자 스스로 잠을 깨기가 어려워 이 같은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한 것이었다. 이에 에스원은 "졸음운전 경보기"를 24시간 운영하는 관제센터와 연동해서 출동사원이 졸음운전시 그 상태가 관제센터에 통보되고, 관제센터에서는 졸음운전 신호를 접수하는 즉시 해당 차량과 무선 및 전화통화를 시도하여 출동사원이 졸음을 깰 수 있게 제3자가 개입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18년 대형 졸음운전 사고 예방은 물론, 발생 건수도 대폭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림 2] 졸음운전경보기 관제연동 시스템 개발

3. 맺음말

에스원은 국내 최초 졸음운전경보기 관제연동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첫째, 출동사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게 되었고,
둘째, 출동사원들은 불가피한 졸음운전 時 관제센터에서 자신을 모니터링 하고 있음에
따라 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 되었으며,
셋째, 에스원의 "차량운행관리시스템(UVIS)"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한
상용화를 구상하고 있다.

에스원은 앞으로도 차량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무
엇보다 임직원의 안전과 고객의 안심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 갈 것 이다.